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a Peer Competence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박사과정 박 주 희
교 수 이 은 해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Park, Juhee
Professor : Rhee, Unhai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for evaluation of preschool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to examine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15 items of the preliminary scale were completed by teachers, and peer rating scale for assessment of peer acceptance was administered to 365 children 5 to 6 years of age. The methods for data analysis included item analysis, factor analysis for construct validity, Pearson correlations between teacher's ratings of peer competence and children's ratings of peer acceptance for concurrent validity, and Cronbach's α for reliability.

The 15 items of the scale were found be satisfactory in terms of item response distribution and item discrimination.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a 3-factor solution was the best fit: sociability, prosocial behavior, leadership in peer relations. Correlations between teacher's ratings and children's ratings were all significant. Cronbach's α ranged from .88 to .93 for three subscales and .93 for the total scale. It was concluded that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er competence scale in general were acceptable for use.

주제어(Key Words): 취학 전 아동(preschool children),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 척도개발(development of a scale)

I. 서 론

아동은 성장해감에 따라 누구나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하는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또래와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에 비해 덜 권위적이고 덜 비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인과의 관계와는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즉 아동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또래와 상호작용 하면서 새로운 역할, 사고, 행동 등을 보다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또래는 중요한 사회적 강화의 원천이 되고 사회적 모델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적이고 유능한 행동들을 학습한다(Schaffer, 1996; Shaffer, 2000). 반대로 아동기에 또래와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정서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Crick, 1996; Parker & Asher, 1993). 이와 같이 아동기의 또래관계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더욱이 취업모나 편부모 가족의 증가와 함께 아동들이 과거 보다 더 이른 시기에,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탁아기관이나 유치원 등과 같은 구조화된 또래 집단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또래와의 관계가 아동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Asher, 1990).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 즉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또래와 가족 맥락에 포함된 다양한 변인들이 또래 유능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시도해왔다. 예를 들어, 사회인지적 특성(이미순, 1995; 임연진·이은해, 2000), 정서적 특성(Denham, McKinley, Couchoud, & Holt, 1990) 등과 같은 아동 개인의 특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과 훈육방식(안재연, 1992; Dékovic & Janssens, 1992; Dishion, 1990; Hart, Ladd, & Burleson, 1990), 또래관계 관리전략(김희진, 1998; 송정; 1999; Cohen, 1989; Mize & Pettit, 1997)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특성들이 또래관계에서의 유능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또래관계에서의 효율적인 기능, 즉 또래 유능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이것이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과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또래관계가 아동이 경험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관계 중 하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가 비단 또래와의 관계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또래 유능성을 사회적 유능성과 구분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정의는 유능성을 개괄적 개념으로 간주하느냐 혹은 구체적 특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술은 상황 특수적이고 연령 특수적이기 때문에 이 보다는 하나의 통합적 개념으로 유능성을 정의하는 것이 개인의 적응을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할 것이다(Waters & Sroufe, 1983).

Waters와 Sroufe(1983)의 정의에 따르면 유능성이란 "환경의 요구에 대해 융통성 있고 적응적인 반응을 산출하고 통합하며, 환경 내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이용하는 능력"이다. 이처럼 개인의 적응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을 사회성 발달 영역에 적용해 본다면, 사회적 유능성은 Ford(1982)가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이 속한 사회적 상황과 발달단계에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목표를 성취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해 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유능성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발달적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며(이은해, 1995; Schneider, 1993),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이란 성인이나 또래와 만족스럽게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아동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Katz & McClellan, 1997).

이 때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정의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 왔다(도현심, 1994; Katz & McClellan, 1997). 이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서도 또래와의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이 아동기에 들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licker, Englund와 Sroufe(1992)가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아동기의 주요 발달적 이슈를 제시한 바에 따르면, 유아기에는 효과적인 애착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취학 전기에는 또래 집단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이, 그리고 학령기에는 친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중요한 발달적 과제이다. 즉 생의 초기에는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반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기의 사회적 유능성을 다룬 다수의 연구들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동기의 또래관계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사회적 유능성과 또래 유능성을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해 왔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엄밀한 의미에서 또래와의 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유능성을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또래 유능성이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또래 유능성에 대한 정의는 평가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능성이란 그 정의에 언급된 것처럼 효율적인 측면의 기능을 강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Wine, 1981)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발달적 특성을 통해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또래로부터의 거부, 공격성, 비사교성, 위축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들을 기초로 또래 유능성을 평가해왔다. 물론 또래관계에서 유능한 아동이 이와 같은 부정적 특성을 적게 보이기는 하지만, 또래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곧 유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해서 그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유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정적 특성을 또래 유능성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정의에 부합하는 적절한 평가 기준이나 내용을 통해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또래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는데, 누구를 정보원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래의 평가, 교사와 부모의 평가, 외부 관찰자에 의한 평가, 아동 자신의 보고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온 방법은 또래 상호작용의 대상인 또래의 선택이나 반응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또래에 의한 평가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성 측정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성 측정법이란 아동이 속한 또래 집단 내의 다른 아동들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 사회적 선호나 호감, 또는 배척의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인데(이은해, 1995), 이것은 다시 또래 지명법과 또래 평정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래 지명법(peer nominations)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준거에 따라 한 집단의 아동들로 하여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아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반면 또래 평정법(peer ratings)은 집단에 속한 모든 아동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몇 단계로 평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또래 지명법과 다르다. 또래 지명법은 또래 집단 내에서 개개 아동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며, 또래 평정법은 집단 내의 모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동일한 대상을 반복 측정하여 결과를 얻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Schneider, 1993).

이처럼 상호작용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또래가 아동의 또래관계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또래를 통해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자들은 사회성 측정법을 가장 일반적인 평가방법으로 사용해왔다. 그러

나 사회성 측정법은 또래 집단 내에서 아동의 인기도나 수용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러한 결과를 야기한 유능성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계속 비판을 받고 있다(Schneider, 1993). 뿐만 아니라 또래는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평가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의존하여 평가를 내리기 쉬우며, 후광효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Yarrow & Campbell, 1963)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Asher & Hymel, 1981, 재인용). 따라서 사회성 측정법은 교사나 부모, 기타 다른 평가자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취학 전기 아동의 경우 아동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사와 부모이다. 때문에 교사와 부모는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중 교사는 유사한 연령의 여러 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비해 부모는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개입되어 있으며 다른 아동에 대한 경험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보고에 비해 덜 신뢰로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dingham & Younger, 1985). 따라서 몇몇 연구자들은 교사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교사의 평정으로 공격적 아동, 위축 아동, 그리고 인기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변별할 수 있으며(Ollendick, Oswald & Francis, 1989), 행동이 특이한 아동을 정확히 밝힐 수 있다(Gresham, Elliott & Black, 1987)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에 의한 평가 방법은 집단 내에서의 개인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또래 유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또래 유능성 척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개발된 척도들은 대부분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또래관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기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은해(1997)는 Levine, Elzey와 Lewis (1969)의 California Preschool Social Competency Scale를 기초로 취학 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교사용 평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30문항으로 구성된 4단계 기술평정 척도로서 아동이 놀이실에서 보이는 대인행동,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일과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기초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평가하게 되어있다.

도현심(1994)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 교사 평정 척도를 개발한 바 있는데, 주로 또래와의 관계에서의 유능성에 초점을 두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특성을 통해 사교적 행동, 대인관계에 대한 적응, 사회적 참여, 인기도 및 리더쉽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유치원 아동용과 초등학교 아동용은 각각 24문항과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교사 평정 척도로 Kohn(1986)이 개발한 사회적 능력 척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참여 및 관심,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순응의 두 요인으로 3-6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으며, 국내 연구(한성희, 1986)에서 번안되어 사용된 바 있다(이은해, 1995, 재인용).

또한 부모 평정용 척도로는 Pease, Clark와 Crase (1979)가 개발한 Iowa 사회적 능력 척도(Iowa Social Competency Scale: ISCS)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국내 연구(김정아, 1990; 안유경, 1994; 안재연, 1992; 최경순, 1992 등)에서도 빈번히 사용되어온 척도 중 하나로서 취학 전기 아동용(Preschool Form)과 학령기 아동용(School Form)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취학 전 아동용은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안정성, 비협조성, 협조성 등에 대한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령기 아동용은 과제 지향성, 방해성, 지도성, 신체적 활동성, 부모에 대한 애정, 불안정성 등 6개 하위 요인에 대한 26개 문항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경희(1994)도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척도들을 기초로 어머니용 평정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 개방성 등의 네 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들은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또래관계에서의 유능성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평정 척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또래 유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 유능성 척도 중 또래관계에 관련된 일부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는 등(이은주, 1996)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체계적인 연구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용어상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래 유능성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적절한 척도를 개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유능성이라는 개념은 시공간적으로 보편타당성을 갖는 개념이라기 보다 각 사회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근본 가치를 반영하는 특수성을 지닌 개념이기 때문에(이경희, 1993), 외국의 척도를 단순히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적합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취학 전기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용 교사 평정 척도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기 아동에 초점을 두고 교사의 관찰에 기초한 평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특히 교사 평정의 경우 대개 여러 아동을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간편히 사용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는 데 초점을 두며, 유능성에 대한 정의와 일관성을 가지도록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특성을 통해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척도의 개발은 또래 유능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교사로 하여금 아동의 또래관계를 평가하고 지도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6세 아동 365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네 개 유치원과 한 개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일부 학급을 선정한 후 학급에 속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유능성에 대한 교사 평정과 또래 평정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였다. 대상 학급 아동 중 연령이 만 5-6세에 해당하며, 세 가지 자료가 모두 수집된 아동은 총 365명이었고, 또래 유능성에 대한 평정에 참여한 교사는 16명이었다.

연구 대상 아동은 남아가 185명으로 50.7%, 여아가 180명으로 49.3%를 차지하여 성별 구성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 구성은 만 5세 아동이 154명, 만 6세 아동이 211명이었다. 또한 그 외의 아동과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많았고, 첫째와 둘째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대졸이상이 약 75%, 아버지의 경우 약 86%로 나타나 연구대상 아동의 부모들은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임을 보여주었다.

<표 1> 연구 대상 아동과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 (N=365)

변 인	구 분	아 동	어머니	아버지
		빈도(%)	빈도(%)	빈도(%)
성 별	남	185(50.7)		
	녀	180(49.3)		
연 령	5세	154(42.2)		
	6세	211(57.8)		
출생순위	첫째	208(57.0)		
	둘째	137(37.5)		
	셋째	20(5.5)		
교육수준	중 졸		1(0.3)	0(0.0)
	고 졸		91(24.9)	49(13.4)
	대 졸		238(65.2)	241(66.0)
	대학원 이상		35(9.6)	75(20.6)

2. 연구 도구

1) 또래 유능성 척도의 구성

취학 전기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1차 예비 조사는 11명의 유치원 교사에 대한 개별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우리 나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문항 내용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자가 취학 전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련된 개방형 질문을 작성한 후 교사에게 질의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또래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의 특성, 그러한 아동에 대한 또래의 반응, 그리고 또래 유능성이 잘 반영되는 상황 등 우리 나라 취학 전 아동의 전반적인 또래관계 특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교사 한 명당 40분에서 한 시간 정도였다. 교사면접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함께 아동의 또래관계 유능성에 관련된 국내외의 척도들(도현심, 1994; 안재연, 1992; 이경희, 1994; 최경순, 1992; Chen, 1997; Mize & Pettit, 1997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들이 또래관계에서의 사교성, 리더쉽, 문제해결기술, 친사회성 등에 관한 25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작성한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 전공자 3인에게 내용 검토를 의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일부 문항 내용을 수정하였다.

1차 예비 조사를 기초로 구성된 25문항 중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15명의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2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교사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아동 중에서 무작위로 10명을 선택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25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그 내용이 아동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이 때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취학 전 아동에게 부적합한 문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교사가 보고한 응답 소요시간은 한 아동 당 5분에서 7분 정도였다. 150부 중 147명의 아동에 대한 자료가 회수되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25개 문항에 대한 반응분포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평균이 편포되어 천정 효과(ceiling effect)를 보이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아 반응 범위가 제한된 문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교사들이 일부 문항에 대해 응답하기 어렵다거나 부적합하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에 2명 이상의 교사가 동의한 5개 문항을 제외한 후 20문항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Oblimin 방식으로 사각회전하였으며, 스크리 검사 결과 2-3개 정도가 적절한 요인수라고 판단되어 요인 수를 달리하여 회전시킴으로써 적합한 요인구조를 탐색하였다.

요인별 문항의 내용과 수, 그리고 고유치 등을 고려한 결과 세 개 요인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요인부하량이 높고(.60이상) 여러 요인에 중복되지 않는 15개 문항을 선택하여 연구용 척도를 구성하였다(<표 3>의 문항 내용 참조).

2) 또래 수용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측정치로서 또래 수용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또래 평정 척도(Asher, Singleton, Tinsley, & Hymel, 1979)를 실시하였다. 각 아동 별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자신이 속한 학급 아동의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면서 그 아동과 함께 놀고 싶은 정도를 3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때 이성 아동에 대한 평정이 부정적이라는 지적(Asher & Hymel, 1981; Daniel-Beimess, 1989)을 기초로 또래 평정의 대상을 동성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응답하는 아동과 일치하는 성별의 주인공이 웃고 있는 표정, 중립적인 표정, 찡그리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림을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언어적 능력이나 수줍음이 아동의 응답을 제한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즉 아동에게 동성 급우들의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면서 그 아동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후, 만약 그 아동과 함께 놀고 싶으면 '웃는 표정(3점)'을, 보통이면 '중립적인 표정(2

점)'을, 함께 놀고 싶지 않으면 '찡그린 표정(1점)'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아동이 학급 내 동성 또래들로부터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고, 이를 평정자 수로 나누어 또래 평정 점수를 산출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3.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본 조사와 자료 분석

1) 본 조사

본 조사는 2000년 1월-2월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서울시에 위치한 네 개 유치원과 한 개 어린이집의 16개 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 대상 기관이 예비 조사를 실시한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가 각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학급의 주 교사들에게 또래 유능성 척도에 응답하는 지침을 설명한 후 해당 학급에 속한 아동들의 또래 유능성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때 교사에게 각 아동의 일상적 행동 관찰결과를 기초로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을 숙지시켰다. 각 문항의 내용이 아동의 특성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하나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각각 1점-5점으로 채점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또래 수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훈련을 받은 검사자 8명이 기관의 빈 교실을 이용하여 또래 평정 척도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들은 각 아동에게 또래 평정 척도에 응답하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과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수집하였다.

또래 유능성 척도와 또래 평정 척도를 실시한 427명의 아동 중 만 5-6세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자료와 수집된 자료의 내용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65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7.5 윈도우용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의 반응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문항별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총점 분포에 따라 전체를 상·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x^2 계수와 Cramer V 계수를 산출하였다.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항 자료로 주성분 분석과 사각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래 유능성 척도 문항과 또래 수용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통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척도의 문항 양호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구용 척도의 15문항에 대한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5개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5점 척도에서 3.1-3.6의 범위로 약간의 부적 편포를 보이나 천정효과(ceiling effect)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 대상 아동의 또래 유능성은 '보통이다(3점)'을 기준으로 긍정적인 편에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81에서 1.08로 나타나 반응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총점을 기준으로 대상 전체를 상·하 각 50%씩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문항의 반응 답지에 대한 응답 빈도에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15개 문항 모두 $p<.001$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각 문항 점수와 총점(상·하 집단)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보여주는 Cramer의 V 값도 .38-.69의 범위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또래 유능성 총

<표 2> 아동의 또래 유능성 척도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 변별도

문항 번호	평 균	표준편차	x^2	df	Cramer's V
1	3.2	1.08	167.3***	4	.68***
2	3.5	.90	86.4***	4	.49***
3	3.3	.94	174.1***	4	.69***
4	3.6	1.01	88.3***	4	.49***
5	3.4	.90	108.1***	4	.54***
6	3.4	.88	147.8***	4	.64***
7	3.3	.99	148.1***	4	.64***
8	3.5	.95	60.9***	4	.41***
9	3.4	.89	166.4***	4	.68***
10	3.4	.92	167.4***	4	.68***
11	3.6	.81	73.1***	4	.45***
12	3.3	1.02	167.0***	4	.68***
13	3.3	1.00	149.6***	4	.64***
14	3.6	.88	53.2***	4	.38***
15	3.1	1.04	170.3***	4	.68***

***p<.001

점에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척도의 타당도 검증

또래 유능성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래관계에서의 유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준거로서 또래 수용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 둘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1) 요인 분석

연구용 척도의 15문항에 대한 자료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간 상관을 고려하여 사각회전하였고 요인 수를 2-3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요인의 구조와 의미가 가장 명확하게 구분

<표 3> 아동의 또래 유능성 척도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하위 요인	문 항	I	II	III	h^2
요인 I (사교성)	6. 다른 아이들이 이 아동을 좋아한다.	.96			.86
	3.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92			.85
	9. 다른 아이들이 이 아동과 함께 놀고 싶어한다.	.88			.84
	15. 다른 아이에 비해 친구가 많다.	.81			.83
	12. 여러 아이들과 고루 친하게 지낸다.	.58			.61
요인 II (친사회성)	8. 다른 아이에게 양보를 잘 한다.		.92		.82
	11. 장난감이나 교구를 다른 아이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쓴다.		.82		.75
	14.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잘 도와준다.		.82		.62
	2.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78		.69
	5. 다른 아이와 갈등을 경험할 때 타협을 잘 한다.		.67		.66
요인 III (주도성)	4.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91	.74
	7. 다른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자기주장을 한다.			.85	.77
	13. 다른 아이들이 따라할 만한 놀이나 활동을 제안한다.			.81	.77
	1.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나 활동을 주도한다.			.70	.77
	10.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를 재미있게 이끌어간다.			.57	.71
고유치		7.42	2.57	1.29	
설명변량(%)		49.45	17.15	8.58	
누가변량(%)		49.45	66.60	75.18	
요인간 상관	요인 I	1.00			
	요인 II	.39	1.00		
	요인 III	.53	.21	1.00	

되는 것은 세 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예비 조사 결과에서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발견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세 요인이 전체 변량의 약 75%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도 .57에서 .96으로 나타나 요인 타당도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먼저 요인 I에 포함되는 문항은 5개 문항으로서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인을 '사교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I은 전체 변량의 약 49%를 설명해주었다. 요인 II도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문항들은 다른 아동을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요인 II를 '친사회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17%를 추가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요인 III은 5개 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약 9%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이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주도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사교성이 7.42, 친사회성이 2.57, 주도성이 1.29였으며, 요인간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세 요인간 상관은 .21에서 .53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2) 또래 유능성과 또래 수용도의 관계

또래 유능성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척도와 또래가 평가한 또래 수용도 간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즉 또래 유능성 척도의 하위 요인인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과 또래 수용도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r=.43$, .34, .25로 모두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는 아동일수록 교사들이 사교적이고 친사회적이며 주도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또래 유능성 전체 척도와 또래 수용도 간에도 $r=.41$($p<.001$)의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또래관계에서 유능함을 보여주었다.

〈표 4〉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또래 수용도 간의 상관계수

또래 유능성	또래 수용도
사 교 성	.43***
친사회성	.34***
주 도 성	.25***
전 체	.41***

*** $p<.001$

〈표 5〉 또래 유능성 척도의 문항 수와 신뢰도

	문항 수	Cronbach α
요인 I (사교성)	5	.93
요인 II (친사회성)	5	.88
요인 III (주도성)	5	.90
전 체	15	.93

3.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최종 선정된 문항들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요인 I이 .93, 요인 II가 .88, 요인 III이 .90이었으며, 전체 15문항에 대한 신뢰도 역시 .93으로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아동의 또래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또래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즉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수행되어온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또래 유능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또래 유능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취학 전기 아동의 또

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 척도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15개 문항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 Cramer의 V 값을 산출하여 문항 양호도를 알아본 결과, 각 문항이 약간의 부적 편포를 보이나 천정 효과나 반응 범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항이 총점에 의한 상·하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문항 반응분포와 변별도 면에서 양호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검증은 요인분석 및 또래 수용도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요인분석 결과, 예비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 이 세 요인은 각각 또래 관계에서의 '사교성', '친사회성', 그리고 '주도성'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75%를 설명해주었다. 교사가 평가한 또래 유능성 척도와 또래가 평정한 또래 수용도 간의 상관에서는 전체 척도와 하위 요인 모두 또래 수용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척도의 요인구조 및 외적 준거와의 상관은 본 척도의 경험적 타당도를 제시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 α를 산출해 본 결과 전체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93으로 높은 편이었다. 세 하위 요인의 신뢰도도 문항 수가 각 5개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88에서 .93까지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 본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이 동질적이며 내적 일관성을 통한 신뢰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항 양호도,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결과에 기초해보면, 우리 나라 취학 전기 아동의 또래관계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본 척도는 또래 유능성에 관한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척도는 기존의 관련 도구에 비해 문항 수는 적은 반면 신뢰도와 타당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평정을 의뢰할 때, 교사는 여러 아동을 동시에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문항 수가 많을 경우 현실적으로 평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문제가 자료의 신뢰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척도는 자료수집의 경제성과 신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의 개발에 관련된 제한점과 활용상의 유의점을 밝히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야할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신뢰도를 검증함에 있어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였으나 시간에 따른 평정 점수의 안정성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본 척도의 신뢰도에 대한 증거가 보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의 관찰에 기초한 평정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본 척도를 활용할 때 관찰자인 교사가 가지는 편견과 오류가 평가에 개입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다 신뢰롭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교사들에게 관찰과 평정을 위한 지침을 숙지시켜야 할 것이며, 충분한 교사 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척도가 교사에 의한 평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평정자(교사) 간의 일치도를 통한 신뢰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 아동의 부모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표집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교적 높은 집단으로 편중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는 또래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특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다양한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대상에 따른 특수한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은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또래들에게 사교적이거

나 주도적이지 못하지만 특정한 몇몇의 친한 친구와는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아동의 경우 그 유능성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또래관계에서의 유능성과 이원적인 친구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연구용 도구로서 또래 유능성 척도에 대한 양호도는 일차적으로 본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나,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통해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진(1998).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의 지도/감독행동, 그리고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43-53.

도현심(1994).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ners and sixth graders: Its relationships to parental attention, parental protectiveness, the children's sex, and their birth category.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정(1999). 자녀의 또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 개입 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유경(1994).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199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미순(1995).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1996). 빈곤층 아동의 또래 역량.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해(1995). 아동발달의 평가와 측정. 서울: 교문사.

이은해(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 31-45.

임연진, 이은해(2000).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8(1), 9-23.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sher, S. R. (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3-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sher, S. R., & Hymel, S. (1981).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 Sociometric and behavioral assessment. In J. Wine, & H. Syme (Eds.), *Social competence* (pp. 125-157). New York: Guilford Press.

Asher, S. R., Singleton, L. C., Tinsley, B. R., & Hymel, S. (1979). A reliable sociometric measure for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43-444.

Chen, J. (1997). Par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nese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behaviors in Taiw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Cohen, J. S. (1989).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Daniels-Beirness, T. (1989). Measuring peer status in boys and girls: A problems of apples and oranges? In B. H. Schneider, G. Attili, J. Nadel, & R. P. Weissberg (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pp. 107-120).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Dékovic, M., & Janssens, J. M. A.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Denham, S. A., McKinley, M., Couchoud, E. A., & Holt, R. (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reschool peer ratings. *Child Development, 61*, 1145-1152.

Dishion, T. J. (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874-892.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Gresham, F. M., Elliott, S. N., & Black, F. L. (1987). Factor structure replication and bias investigation of the teacher rating of social skill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5*, 81-92.

Hart, C. H., Ladd, G. W., & Burleson, B. R. (1990). Children's expectations of the outcomes of social strategies: Relations with sociometric status and maternal disciplinary styles. *Child Development, 61*, 127-137.

Katz, L. G., & McCl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Ledingham, J. E., & Younger, A. J. (1985). The influence of the evaluator on assessments of children's social skills. In B. H. Schneider, K. H. Rubin, & J. E. Ledingham (Eds.),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pp. 111-121). New York: Springer-Verlag.

Mize, J., & Pettit, G. S. (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 312-332.

Ollendick, T. H., Oswald, D. P., & Francis, G. (1989). Validity of teacher nominations in identifying aggressive, withdrawn, and popular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221-229.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Schaffer, H. R. (1996). *Social Development*. Massachusetts: Blackwell.

Schneider, B. H. (1993).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context: The contributions of family, school and culture*. New York: Pergamon Press.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Wine, J. (1981). From defect to competence model. In J. Wine, & H. Syme (Eds.), *Social competence* (pp. 3-35). New York: Guilford Press.